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3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 총력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심의회 통해 신청자 14개소 압축 현장 방문 컨설팅 등 지원 박차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 신청 대상자를 자체 심의회를 통해 14개소로 압축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농업 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17개 사업신청자 가운데 14개소를 선정했다. 오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14개 생산자 단체는 나주 자연이좋은사람들(고구마), 광양 봉강친환경영농조합(퇴비), 고흥 팔

영농협동조합(벼), 보성 (주)우리원(벼)과 보림제다(주)(녹차), 북부농업협동조합(벼), 화순(주)영글어농장(블루베리), 장흥 농업회사법인 삼영(주)(벼), 해남 정운영농조합(벼), 영암 푸름채원에영농조합(고구마)과 서영암농업협동조합(벼), 무안 케이팜영농조합(고구마)과 (유)행복한고구마(고구마), 영광 칠산영농조합(벼) 등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친환경농업 참여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최대 10억원(자부담 20%)이다. 농식품부는 8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9월까지 전국 1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2년 사업계획과 신청 방법 등을 시·군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 코로

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가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바라는 생산자 단체의 현장을 방문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계획서 작성을 돕는 등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 대상자 발굴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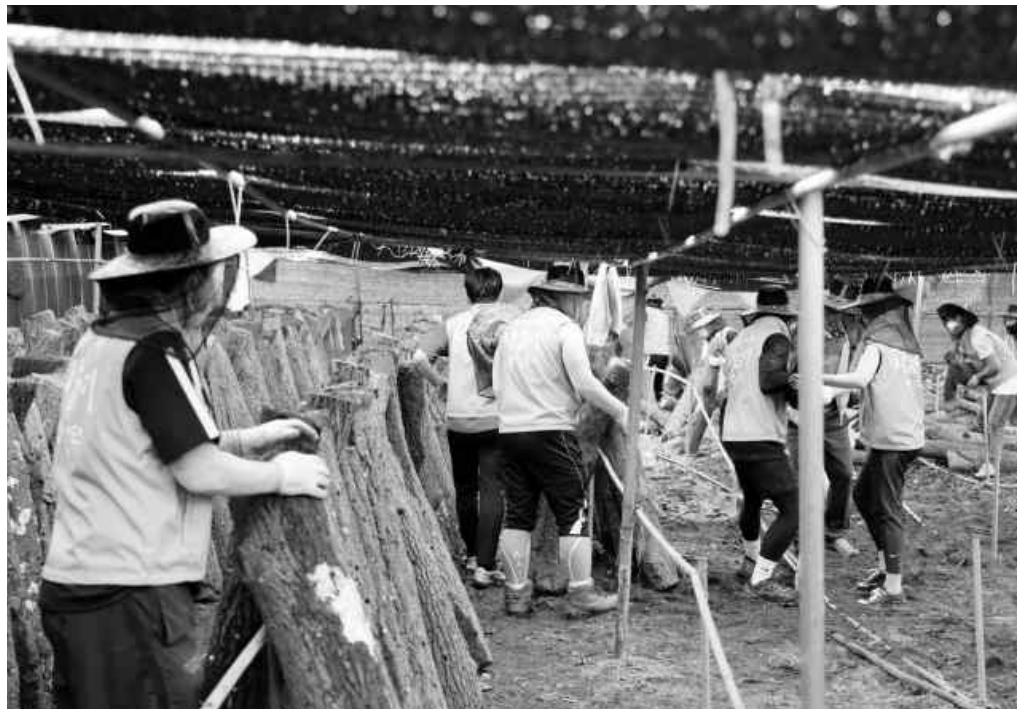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국의 56%를 차지하는데 이는 그동안 꾸준히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한 결과”라며 “친환경농업의 1번지인 전남의 위상을 잇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전국 18개소 중 6개소가 선정돼 47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전국 18개소 중 8개소가 선정돼 사업비 57억원을 지원하는 등 3년 연속 전국에서 최다 개소가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장흥서 수해복구 봉사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이 봉사단이 최근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장흥군 평촌마을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흥군 대덕읍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봉사단은 일손이 모자라 치울 염두를 못 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토사를 제거, 피해 농작물 수거, 비닐하우스 내 쓰러진 표고목 세우기 등 일손을 보탰다. 김철신 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GS리테일, 고수온지역 어업인 돕기 특판

전북·광어·우럭 20t

전국 GS수퍼마켓 할인 판매

전남도와 GS리테일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어려운 양식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과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전라남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짧은 장마 이후 지속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수온이 급격히 올라 전남 해역에는 지난달 15일 합평만, 득량만, 가막만에 고수온 주의보가 최초 발령됐다. 20일 합평, 29일에는 득량만이 고수온 경보

로 격상됐으며, 진도 등 남해 연안과 신안군 해역으로 고수온 주의보가 확대됐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바닷물 속 산소가 부족해지고, 양식수산물, 어패류의 대량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가 발생 전 수산물의 소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과 함께 전북, 광어, 우럭 약 20t을 준비, 행사기간 동안 전국 GS수퍼마켓에서 시중가 대비 20~40%까지 할인된 알뜰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국민, 삼성, 농협, 팝카드 등 행사카드로 결제시 전북 4마리를 5800원, 광어회 250g을 1만4800

원, 우럭회 250g을 1만8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GS리테일과 150억원 규모 농수축산물 구매협약 이후 지난해 12월 도-GS리테일이 공동으로 개발한 가정간편식을 선보이는 등 지역 우수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도가 앞장서 조기출하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뷰티월드 두바이 미용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전남도 9개사 내외 6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화장품·미용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1 뷰티월드 두바이 화장품 미용전시회’ 참가 기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다. 올해 26회째로 화장품, 향수, 오가니 제품을 아우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가장 큰 뷰티 전문 전시회다.

두바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주변 국가로 재수출이 용이한 불류 거점 시장이다. 화장품, 미용 제품 등을 비롯한 프리미엄급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시장이다.

전남도는 전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화장품·미용제품 수출 중소기업 중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감안해 9개사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 장치비, 현지 통역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참고해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양구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과 미용업체의 해외 시장, 특히 두바이를 포함한 기타 중동국가로의 수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대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에 목포대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종 선정돼 3년간 국비 33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생활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생활밀착형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제조 분야 창업과 연계한 전문 시제품을 제작하는 공간이다. 일반랩과 전문랩,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랩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창작 교육과 함께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랩은 전문 제조장비를 활용해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82개 기관이 참여, 전문랩 5.1대 1, 일반랩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전문랩 8개와 일반랩 18개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무안 목포대가 전문랩,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반랩으로

각각 뽑혔다.

선정 기관에는 앞으로 3년간 공간·장비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비 지원한다. 전문랩은 최대 27억원, 일반랩은 최대 3억3000만원이다.

특히 목포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는 기존 일반랩을 전문랩으로 확장했다. 스마트팜 제조창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성능시험 및 실증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공간으로 구축한다.

농산업을 디지털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팜산업 관련 제품을 실증, 보급하는 핵심 기지가 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전문랩 12개, 일반랩 177개 등 189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이다. 전남에는 전문랩 1개, 일반랩 8개 등 9개소가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성공 창업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내실 다진다

전남도 정성평가·인센티브 도입

전남도가 주민 참여와 화합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 고유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사업 계획부터 사업추진, 사후관리까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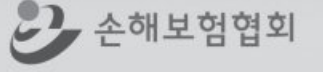
총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5년 동안 3000개 으뜸마을을 선정해 인식 전환, 환경 정화,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1년 차 사업으로 지난 3월 1000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출발 단계인 가운데 ‘담양읍 뚝방마을 벽화그리기’, ‘곡성읍 구원마을 마을입구 화단조성’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을 정비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행복지수 향상과 함께 자발적 공동체가 결성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차 사업지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1차 이미지 평가와 2차 우수사례지 평가로 나뉘어 이뤄져 연말에 우수 시·군 6곳과 우수 마을 50개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위원회를 구성, 1차 이미지 평가 대상지로 시·군 추천을 받아 각 4개소씩 88개소를 선정했다. 앞으로 평가 방향, 일정 등을 조율한 후 11월까지 시·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 제시, 주민의견 수렴, 우수 으뜸마을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